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 내용 완벽 분석,
학교 시험 실전 대비

평가문제집

고등학교 **화법과 언어**



서학 교과서편

교과서의 핵심 내용 완벽 분석

— 주요 활동 정리와 응용 문제로
실력 강화

— 고난도, 서·논술형 문제까지
1등급 실력 완성

— 신경향 화법과 언어 통합 지문,
문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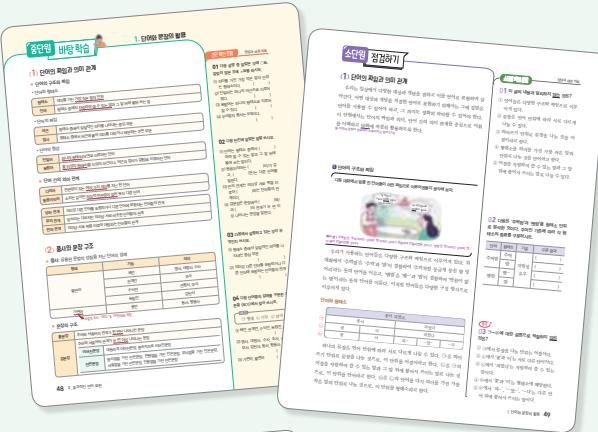
이 책의 구성과 특징

대단원 흐름 보기로 학습 포인트 파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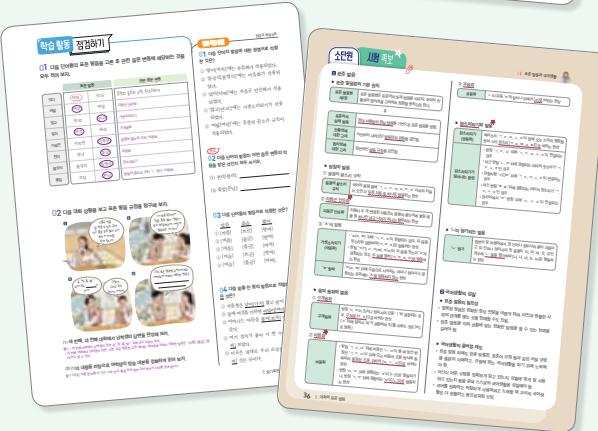
대단원 한눈에 보기 대단원의 구성을 한눈에 살펴보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통해 대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습니다.

본문과 학습 활동으로 교과서 완벽 분석하기



중단원 바탕 학습 중단원의 필수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간단 확인 문제'로 이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단원 점검하기 소단원의 본문 내용을 학습하고 '소단원 핵심 문제'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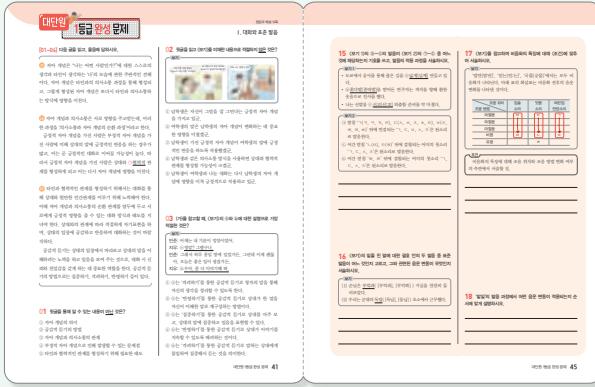


학습 활동 점검하기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학습 활동을 예시 답과 함께 살펴보고 '활동 적용 문제'로 점검하여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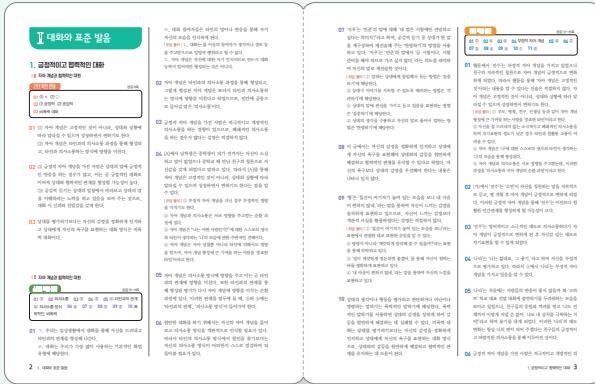
소단원 시험 족보 소단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시험에 나올 만한 개념들을 한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학사 화법과 언어 평가문제집은 교과서 핵심 내용 완벽 분석과 다양한 문제 수록으로
학생들이 내신을 탄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반복하여 학교 시험 실전 능력 기르기



친절한 정답과 오답 풀이로 고득점 따라잡기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소단원에서 꼭 풀어 보아야 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수록했습니다. 출제 예감 문제, 학습 활동 응용 문제, 서술형 문제 등을 풀며 어떠한 유형의 문제라도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단원 실력 점검 문제 중단원별로 시험에 출제될 만한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습 활동 응용 문제, 서술형 문제, 관련 기출 문제 등을 풀며 학교 시험에 대비 할 수 있습니다.

대단원 1등급 완성 문제 대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필수 응용 문제와 서술형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언어와 화법 통합 문제와 통합 지문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 상세한 해설을 통해 정답과 오답의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고득점을 위한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제시된 서술형 평가 기준표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답안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차례



대화와 표준 발음

1.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8
■ 자아 개념과 협력적인 대화	8
2. 슬기로운 발음 생활	23
■ 표준 발음과 국어생활	24
대단원 1등급 완성 문제	41



효과적인 언어 표현

1. 단어와 문장의 활용	48
(1) 단어의 짜임과 의미 관계	49
(2) 품사와 문장 구조	63
2.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말하기	84
(1) 상황에 맞게 발표하기	85
(2)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연설하기	95
대단원 1등급 완성 문제	111



담화와 협력적 문제 해결

1. 담화의 표현과 구성	118
(1) 어휘와 문법 요소의 기능	119
(2) 짜임새 있는 담화의 구성	133
2.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146
(1) 토의로 문제 해결하기	147
(2) 반대 신문하며 토론하기	160
(3) 서로 만족하는 협상하기	170
대단원 1등급 완성 문제	188



언어와 우리의 삶

1. 언어와 삶의 흔적	196
(1) 언어와 삶	197
(2) 시대에 따른 국어의 변화	206
2. 언어의 다양한 모습	224
■ 언어의 다양성과 공공성	224
대단원 1등급 완성 문제	236



정답과 해설

I

대화와 표준 발음

1.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2. 슬기로운 발음 생활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대인 관계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

대단원 흐름 보기

중단원	소단원	교과서의 내용 구성
1.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 자아 개념과 협력적인 대화	<p>학습 목표 자아 개념이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p> <p>학습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 개념이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대화 방식을 이해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대화하기
2. 슬기로운 발음 생활	■■■ 표준 발음과 국어생활	<p>학습 목표 • 표준 발음을 이해하고 정확한 발음을 사용하여 국어생활을 할 수 있다. • 기호를 활용한 사회적 행위로서의 국어생활을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p> <p>학습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발음법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발음하기 • 사회적 행위로서의 국어생활을 성찰하고 문제점 개선하기
통합 활동	나의 꿈에 다가서는 대화하기	





자아 개념과 협력적인 대화

자아 개념이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

- 대화: 둘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의사소통 행위
- 자아 개념: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
- 자아 개념의 점검 및 성찰: 원만한 대화를 위해 자신의 자아 개념을 돌아보고 부정적 측면을 긍정적 측면으로 전환하는 등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해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순환 과정: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아 개념은 또다시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침.
- 예)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 → 상대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함. → 긍정적인 대화 → 상대와 협력적인 관계 형성 → 긍정적 자아 개념 강화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대화 방식

공감적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 • 집중하기, 격려하기, 반영하기 등의 방법이 있음.
비폭력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를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대화 방법 • 상대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됨. • ‘관찰한 대로 표현하기 – 느낌 말하기 – 욕구 표현하기 – 부탁하기’의 절차로 표현할 수 있음.

간단 확인 문제

정답과 해설 2쪽

- 01 다음 설명 중 알맞은 것에 ○표, 알맞지 않은 것에 ×표를 하시오.

- (1) 자아 개념은 한 번 형성되면 변화하지 않는다. ()
 (2) 자아 개념은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

02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1) ()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상대와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2) () 듣기는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 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03 <보기>에서 설명하는 대화 방식이 무엇인지 쓰시오.

보기

상대를 평가하기보다 자신 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

자아 개념과 협력적인 대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이때 대화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화법 유형이다. 따라서 상대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이 단원에서는 자아 개념이 타인과의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타인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대화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자아 개념이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

대화는 둘 이상의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정보 등을 주고받으며 서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말한다. 대화 참여자들은 타인의 말이나 반응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자기 인식을 ‘자아 개념’이라고 한다.

소단원 핵심 문제

정답과 해설 2쪽

중요!!

- 01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짹 짹 지은 것은?

- 대화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대화는 설득을 위한 일방적 의사소통 행위이다.
- 대화 능력이 있어야만 자아 개념을 형성 할 수 있다.
- 대화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화법 유형이다.
- 대화 참여자들은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소단원’ 점검하기

자아 개념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이다.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아 개념은 또다시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⑦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⑧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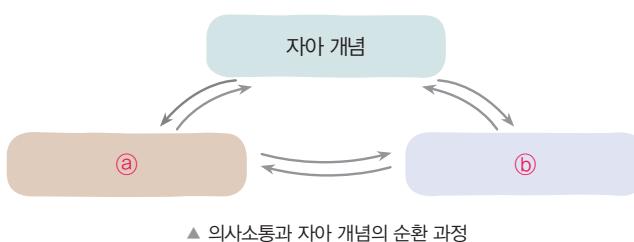
- 긍정적
자아 개념
 - 자존감이 높고 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음.
 -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포용적인 태도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음.
- 부정적
자아 개념
 - 자신을 남과 자주 비교하며 자책하는 경향이 있음.
 - 자신을 드러내기 꺼리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음.



위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아 개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장하면서 변하기도 한다. 즉 자아 개념은 삶 전체에 걸쳐 형성되며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자아 개념 형성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을 ‘중요한 타인’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형제, 학교에 다닐 때에는 친구나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아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글쓰기를 잘한다고 칭찬받은 학생은 글쓰기를 좋아하게 되고 글쓰기에 자신 있는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러한 과정을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소단원 핵심 문지

‘중요’

02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아 개념은 다시 타인과 ()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03 이 글의 ⑦과 ⑧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을 가진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 ② ⑦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 ③ ⑦을 가진 사람은 포용적이면서도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
- ④ ⑧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남과 자주 비교하며 자책하는 경향이 있다.
- ⑤ ⑧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 꺼리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04 이 글의 [A]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아 개념은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② 자아 개념은 의사소통과 별개로 작용 한다.
- ③ 자아 개념은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견해이다.
- ④ 자아 개념은 자아 성찰에 의해서만 형성된다.
- ⑤ 자아 개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05 자아 개념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바탕으로, 이 글의 ⑥와 ⑨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소단원 점검하기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에 비해 상대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 긍정적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상대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원만한 대화를 위해 자신의 자아 개념을 돌아보고 의사소통 방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자아 개념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 원인을 찾고 부정적 측면을 긍정적 측면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매사 투덜대거나 공격적으로 말하지는 않는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말하지는 않는지 등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점검하도록 한다.

②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대화 방식

공감적 듣기

타인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상대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때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의 순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화 방식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적절하게 자기표현을 하며, 상대의 입장에 공감하고 반응하며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감적 듣기는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대화 시 신뢰와 친밀감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감적 듣기의 방법으로는 집중하기, 격려하기, 반영하기 등이 있다.

집중하기

- 말하는 상대에게 몰입해서 듣는 방법
 - 상대를 향해 마주 보고,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음을 표현함.
- 예 민준: 어제는 내 기분이 영 망이었어.
지우: 정말? 그랬구나.

격려하기

- 상대가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
 - 상대의 말에 추임새를 넣거나 상대의 말이 끊긴 경우 차분히 기다림.
- 예 민준: 나 좋은 일 생겼어.
지우: 우아, 좀 더 이야기 해 봐.

반영하기

- 상대가 한 말을 재구성하여 재진술해 주는 방법
 -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고 자신의 말로 풀어서 말함.
- 예 민준: 곧 시험인데 꼭 가야 할까?
지우: 네 말은 시험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의미지?

소단원 학습 문제

중요

06 원만한 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객관적으로 인식한다.
- ②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이 가진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 ③ 자신의 자아 개념을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상태를 인지한다.
- ④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말하는 경우라면 타인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 ⑤ 투덜대거나 공격적으로 말하는 경우라면 부정적 측면을 긍정적 측면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07 <보기>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민준: 곧 시험인데 꼭 가야 할까?
지우: 네 말은 시험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의미지?

- ① '지우'는 말하는 상대에게 몰입해서 듣는 방법인 '격려하기'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지우'는 상대가 한 말을 재구성하여 재진술해 주는 방법인 '반영하기'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지우'는 상대가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인 '집중하기'를 사용하고 있다.
- ④ '지우'는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음을 표현하는 방법인 '반영하기'를 사용하고 있다.
- ⑤ '지우'는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고 자신의 말로 풀어서 말하는 방법인 '격려하기'를 사용하고 있다.

비폭력 대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며, 타인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질책이나 비난을 받으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평가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를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비폭력 대화를 하면 상대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

평가·판단하기	이제 짐이야? 쓰레기장이야?
김정 표현 미숙	너 때문에 정말 피곤해.
비난하기	넌 기운 충 물라?
명령하기	빨리 청소해!

청소는 내가 해보다 더 많이 하는데.....
나도 피곤하단 말이야!

나

관찰한 대로 표현하기	물건이 예기치기 놓여 있는 모습을 보니
느낌 말하기	내 마음이 편하지 않네.
욕구 표현하기	짐이 깨끗해지면 정돈되면 좋겠어.
부탁하기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음까?

관찰한 대로 표현하기	형 말을 듣고 보니 짐이 정말 어지럽네.
느낌 말하기	그런데 지금은 나도 너무 피곤해서
욕구 표현하기	소금만 더 섞고
부탁하기	곧 정리해도 될까?

가에서 형은 폭력적인 말하기를 하고 있으며, 동생은 형과 비교하는 말하기를 함으로써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 반면 **나**에서 형은 비폭력 대화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동생 역시 비폭력 대화 방식으로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서로 협력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자료실

‘나’-전달법

문제 상황에서 상대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대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문제 해결을 모색해 나갈 수 있다.

사건	자신이 문제로 인식한 상대의 행동이나 상황만을 대상으로 말함.
감정	사건에 관해 자신의 느낌이나 기분을 진솔하게 표현함.
기대	자신이 바라는 상대의 행동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함.

‘소단원 핵심 문지

08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 ② 타인을 질책이나 비난할 경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 ③ 상대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말하기는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
- ④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⑤ 자신의 욕구보다 상대의 감정을 우선해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중요!!

09 <보기>에서 드러난 ‘형’의 말하기를 비폭력 대화로 볼 수 있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형: 물건이 여기저기 놓여 있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편하지 않네.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면 좋겠어.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을까?

- ① ‘형’은 상대를 평가하기보다 관찰한 대로 표현하고 있다.
- ② ‘형’은 명령하는 표현보다 부탁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③ ‘형’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
- ④ ‘형’은 미숙한 감정 표현이 아닌 자신의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⑤ ‘형’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보다 객관적 사실을 활용하여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10 다음 설명의 빈칸에 적절한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 말하기는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거나 비난이나 명령 등을 통해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반면, () 대화는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협력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활동

점검하기

정답과 해설 3쪽

01 다음 웹툰을 보고,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의 관계에 관해 생각해 보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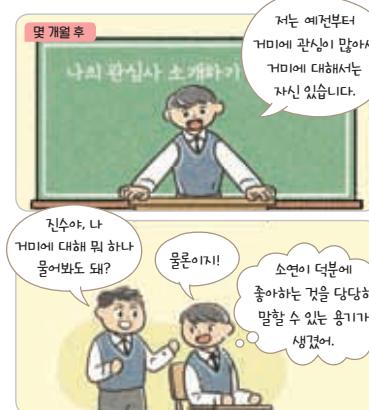
진수의 어린 시절



나



고등학생이 된 진수



- (1) 웹툰에서 '진수'가 자기 자신에 관해 생각한 부분을 찾아보고,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자.

예시 답 |

	'진수'가 자신에 관해 인식한 부분	평가 내용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취향이 이상한가? 옛날에는 거미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유별나다고 해서 요즘에는 바뀌었어. 내가 이상한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유별나고 이상한 사람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평가함.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는 예전부터 거미에 관심이 많아서 거미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소연이 덕분에 좋아하는 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 	다른 사람들이 쉽게 관심 갖기 어려운 거미를 좋아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 있는 태도를 갖게 됨.

활동 적용 문제

중요

01 이 웹툰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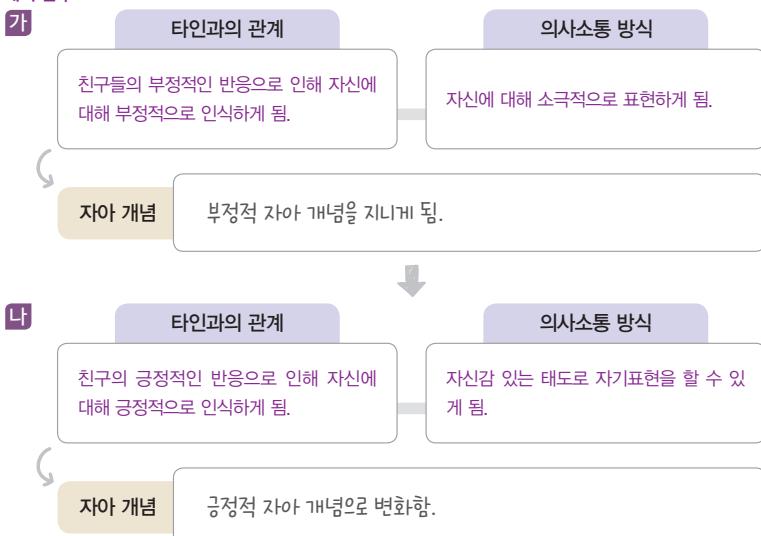
- 부모, 형제, 친구, 선생님 등 중요한 타인의 영향을 받아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
- 자아 개념은 고정적인 것으로 상대와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 자기표현의 정도가 낮으면 타인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해석에 의해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
-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형성된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02 이 웹툰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에서 '진수'는 어린 시절 친구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되었군.
- (가)의 어린 시절에 형성된 부정적 자아 개념은 '진수'가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이어져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군.
- (가)에서 '진수'는 부정적 자아 개념으로 인해 타인과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군.
- (나)에서 '진수'는 친구의 지속적인 칭찬에도 불구하고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군.
- (나)에서 몇 개월 후 '진수'는 변화된 자아 개념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전과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보이게 되었군.

(2) '진수'가 형성한 타인과의 관계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과 자아 개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리해 보자.

예시 답 |



02 다음 드라마 장면을 보고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방식에 관해 생각해 보자.

가 어린 시절 '짜기'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을 했던 '나리'는 악성 댓글과 놀림으로 상처를 받고 방송을 그만둔다. 고등학생이 된 '나리'는 반에서 존재감이 없어 고민하고, 친구들은 '나리'에게 인터넷 예능 프로그램인 '고하트' 학교 대표 선발 대회에 출연하기를 권유한다.

서우: 너도 할 수 있어. 미리 겁먹지 마.

나라: (학술) 난 좀 무서운데. 〈중략〉 사람들이 또 악성 댓글 쓸까 봐.

서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우리가 있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사 네 펴이야

지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용기 있게 도전해 봐

나라: ② 나는 없네요 그 용기

지혜: 네가 ‘짜기’ 때 상처 많이 받은 건 아는데, 그래도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쑥아야지

나라: 그래 나도 어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어 나도 내 상처를 극복하는 거야!

서우: 맞아 맞아 파이팅!

지혜: 할 수 있다. 빛나라!

나 '고하트' 학교 대표 선발 대회에 출연하기로 한 '나라'는 다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고, '나

¹⁴ See "The Social Life of Books," *Journal of American Studies* 42 (2008), 1–20.

— 10 —

활동 적용 문제

03 이 웹툰에 나타난 '진수'의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극적인 태도에서 자신감 있는 태도로 변화하였다.
 - ② 부정적 자아 개념에서 긍정적 자아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 ③ 방어적인 의사소통 태도에서 적극적인 의사소통 태도로 변화하였다.
 - ④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자기표현을 하는 태도에서 상대의 입장에 공감하는 태도로 변화하였다.
 - ⑤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상황에서 타인과 긍정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04 이 드라마의 ②에서 ‘나라’가 어떤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윤축하시오

05 이 드라마에서 ‘나라’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디지털 환경에서 타인에게 받은 댓글
 - ②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 자아 인식
 - ③ 타인의 평가를 통해 유추한 자신의 미래 모습
 - ④ 응원과 격려를 기반으로 한 바람직한 의사소통
 - ⑤ 실패한 경험으로 얻을 수 있었던 자기 반성적 태도

학습활동

점검하기

나라: 댓글 반응도 엄청 좋았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서우: 나라야, 있잖아, 나…….

나라: 나는 ‘짜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워할 줄 몰랐어.

서우: 저기, 나라야…….

나라: 다음에 뭐 먹지? 어? 요즘 뭐가 인기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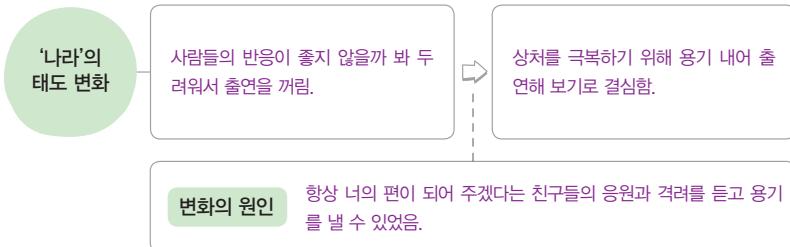
서우: 아니, 나라야. ⑦ 너는 왜 내 말은 안 듣고 항상 네 말만 해?

나라: 어? 내가 언제?

– 신수지 각본, 손예은·박지은 연출, 「하트가 빛나는 순간」

- (1) ①에서 ‘고하트’ 학교 대표 선발 대회 출연에 관한 ‘나라’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리해 보고, 변화에 영향을 준 원인을 생각해 보자.

예시 답 |



- (2) ②의 ‘나라’와 ‘서우’의 대화에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각각 적어 보고,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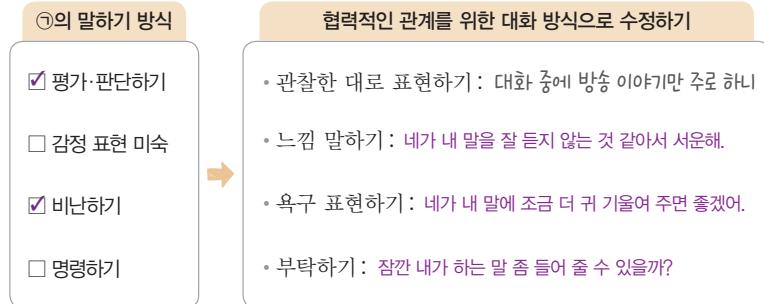
예시 답 |

‘나라’의 말하기 방식의 문제점	‘서우’의 말하기 방식의 문제점
다른 친구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함.	서운한 감정을 상대에 대한 비난의 방식으로 표현함.

-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상대를 충분히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상대의 감정도 고려해야 함.

- (3) ③의 ①이 어떤 말하기 방식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고, 상대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화 방식으로 수정해 보자.

예시 답 |



활동 적용 문제

- 06 긍정적 자아 개념이 중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협력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③ 대화를 자신의 이야기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자신을 객관적인 모습보다 좋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

- 07 이 드라마의 ⑦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표현하였다.
- ② 타인의 말과 행동을 왜곡하여 평가하는 비꼬는 말하기를 하였다.
- ③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상대에 대한 비난의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 ④ 다른 친구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였다.
- ⑤ 명령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가 협력적 태도를 지닐 수 없도록 하였다.

- 08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탁하기
- ② 느낌 말하기
- ③ 욕구 표현하기
- ④ 평가 및 판단하기
- ⑤ 관찰한 대로 표현하기

03 다음 강연을 읽고, 일상생활의 대화 방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해 보자.

'이 사람과는 정말 대화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불쾌감을 주는 대화법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중략>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은 누가 뭘 말해도 우선 아니라고 합니다. "그날 되게 재밌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되게 신났어.", "아니 그게 아니고 많이 웃겼지."라는 대답은 결국 생각하면 질문의 내용과 같은 말이죠. 이건 그냥 말하는 습관이 잘못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주목을 끌려고 하다 보니 이런 나쁜 습관이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니 그게 아니고'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뇌에서 최소한 압정이나 머리편으로 우리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줍니다. 왜? 내 말이 방금 전에 부정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쉽게 지칩니다. 옆에서 누가 계속해서 찌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말의 방향을 유지하기도 되게 힘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응대어를 쓰느냐로 대화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부름이나 물음 또는 요구 따위에 응하여 상대함. '아니 그게 아니고'라고 하는 응대어를 사용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맥락이나 어떤 기조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말투가 부정적인 사상, 작품, 학설 따위에 한결같이 흐르는 기본적인 경향이나 방향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건 사실 본능이죠.

- △△ 방송, 「심리 읽어드립니다」

(1) 위 강연에서 문제 삼고 있는 대화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예시 답 | 습관적으로 상대의 말을 부정하는 말투를 쓰는 대화 방식

(2) 일상생활에서의 대화를 되돌아보고,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 방식을 찾아 적어보자.

예시 답 |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 방식

- 예) 잘한 점을 칭찬하기보다 잘못된 점만을 지적하는 대화 방식
-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말하는 대화 방식
- 상대의 말을 집중하여 듣지 않고 건성으로 대꾸하는 대화 방식

(3) (2)에서 정리한 대화 방식을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바꾸어 보고, 이러한 변화가 나의 자아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자.

예시 답 |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하여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적 듣기의 방식으로 대화하기

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

→ 서로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하니 스스로 가치가 있고 존중받는 사람이라고 느껴짐.

활동 적용 문제

09 이 강연에서 문제 삼고 있는 대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말의 맥락이나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는 대화 방식
- 상대의 질문 내용과 같은 말을 반복하는 대화 방식
- 응대어를 사용하지 않아 말의 연결을 끊는 대화 방식
- 습관적으로 상대의 말을 부정하는 말투를 쓰는 대화 방식
-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기 위해 재미만을 추구하는 대화 방식

10 다음은 이 강연을 들은 학생의 반응이다. 반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대화 습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유익한 강연이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화 습관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봐야겠어.

- 관련된 추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연관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 정보가 부족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 신뢰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강연 내용과 배경지식을 비교하고 있다.

중요!!

11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 방식을 바람직하게 바꾸어야 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회에서 나가서도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자아 개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타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여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타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대화를 이끌 수 없기 때문이다.

[01~05]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다



01 (가)~(다)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릴 때의 경험을 통해 한번 형성된 자아 개념은 바뀌지 않는다.
- ②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소극적이다.
- ③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해야 한다.
- ④ 자아 개념은 자신과의 소통을 통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형성된다.
- ⑤ 자아 개념은 삶 전체에 걸쳐 형성되며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02 (가)의 대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학생'은 중학생이 되기 전에는 부정적 자아 개념을 지니고 있었다.
- ② '남학생'의 중학교 때 친구는 '남학생'의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 ③ '여학생'은 '남학생'이 자아를 드러내는 점에 대하여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 ④ '남학생'은 중학생 때 형성된 자아 개념을 바탕으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⑤ '남학생'은 이전의 자신 모습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변했음을 인지하고 있다.

03 (가)의 '남학생'의 현재와 같은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의 행동을 모두 골라 바르게 짹 지은 것은?

보기

- ㄱ. 자신의 잘못에 대한 타인의 지적을 수용할 줄 안다.
- ㄴ. 자신을 지나치게 낮춰 말하거나 자신감 없이 행동한다.
- ㄷ.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는 자신의 주관에 따라 행동한다.
- ㄹ. 타인의 성공에 대해 투덜거리거나 비웃는 태도를 취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출제 예감 ♪ 학습 활동 응용

04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수'의 친구들은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진수'의 대화를 방해하고 있다.
- ② '진수'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 ③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 평가가 '진수'의 자아 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④ '진수'는 자아 개념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
- ⑤ '진수'는 타인의 반응을 중시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자아 개념을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술형 ♪

05 <보기>를 참고하여 (다)의 '소연'과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를 쓰고,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관계에 대해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보기

자아 개념 형성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으로,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형제, 학교에 다닐 때에는 친구나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아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06 위 대화에 사용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감정과 관련하여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한다.
- ②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 ③ 상대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④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는 것보다 상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 ⑤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른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맺으며 협력적으로 대화한다.

출제 예감 ♪

07 위 대화에서 사용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은 '물건이 여기저기 놓여 있는 모습'을 관찰한 대로 표현하고 있다.
- ② '형'은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면 좋겠'다며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③ '동생'은 '형 말을 듣고 보니 집이 정말 어지럽'다며 '형'의 말대로 관찰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동생'은 '나도 너무 피곤해서'라며 자신의 느낌을 미숙하게 표현하며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 ⑤ '동생'은 '조금만 더 쉬고 곧 정리해도 될까?'라며 '형'에게 부탁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서술형 ♪

08 위 대화에서 '형'의 말이 <보기>를 수정한 것이라고 할 때, <보기>의 말하기 방식이 지난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보기

형: 넌 치울 줄 몰라? 빨리 청소해!

[06~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 물건이 여기저기 놓여 있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편하지 않네.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면 좋겠어.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을까?

동생: 형 말을 듣고 보니 집이 정말 어지럽네. 그런데 지금은 나도 너무 피곤해서 조금만 더 쉬고 곧 정리해도 될까?



1 자아 개념이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

■ 대화와 자아 개념

대화	둘 이상의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정보 등을 주고받으며 서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의사소통 행위
자아 개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해 견해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자신이 느끼고 있는 주관적인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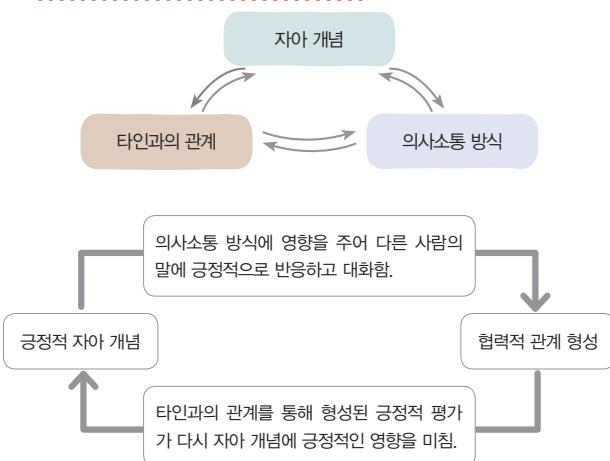
■ 자아 개념의 종류와 특징

긍정적 자아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자신 있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여 긍정적인 인상을 줌.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줌.
부정적 자아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태도로 임할 가능성이 큼.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아 원만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자아 개념의 형성

- 대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해석 등에 의해 형성됨.
-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형성된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방식에 다시 영향을 미침.
-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장하면서 변하기도 함.
- 부모, 형제, 친구, 선생님 등 '중요한 타인'에게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경우가 많음.

■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순환 과정



2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대화 방식

■ 공감적 듣기의 의미

-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의 순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적절하게 자기표현을 하며, 상대의 입장에 공감하고 반응하며 대화해야 함.
-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를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을 둠.
- 신뢰와 친밀감을 갖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공감적 듣기의 방법

집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하는 상대에게 몰입하여 집중해서 듣기 상대를 마주 보고, 상대의 말에 집중함. 적절한 음성적 반응을 할 수 있음.
격려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가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격려하는 방법 상대가 말한 어휘나 표현을 반복해 주거나 질문을 던져 추임새를 넣음. 말이 끊긴 경우 차분히 기다리며 침묵을 견딜 수도 있음.
반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가 한 말을 자신이 이해한 말로 재구성하여 재진술해 주는 방법 상대 생각을 수용하고 자신의 말로 풀어 말함. 상대는 청자의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음.

■ 비폭력 대화의 개념

- 상대를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대화 방식임.
- 상대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됨.

■ 비폭력 대화의 대화 방식

관찰한 대로 표현하기	어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관찰한 대로 표현함.
느낌 말하기	그 행동을 보았을 때의 느낌을 표현함. 아픔, 무서움, 기쁨, 즐거움, 짜증 등의 느낌을 표현함.
욕구 표현하기	자신의 느낌이 내면의 어떤 욕구와 연결되는지를 말함. 다른 사람을 향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희망, 기대, 가치관이나 생각 등을 표현함.
부탁하기	다른 사람이 해 주기를 바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긍정적인 행동을 부탁함.

[01~03]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수의 어린 시절

**다**이번 작품 정말 좋았어.
다음에 더 멋진 작품 기대할게!

서술형

01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자아 개념의 특성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보기

자아 개념의 속성을 설명한 이론으로 ‘거울에 비친 자아’가 있다. 이는 개인의 자아는 타인의 관점과 사회에서의 대인 상호 작용을 통해 성장한다는 개념이다.

나

02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화법의 원리를 모두 골라 바르게 짹 지은 것은?

보기

- ①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소통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 ② 자아 개념은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③ 자아 개념은 타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 ④ 자아 개념에는 부정적 자아 개념과 긍정적 자아 개념이 있다.

① ⑦

② ⑦, ⑧

③ ⑦, ⑨, ⑩

④ ⑦, ⑨, ⑩

⑤ ⑦, ⑧, ⑨, ⑩

0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의 ‘진수’는 자신의 취향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경험하고 있다.
- ② (가)의 ‘진수’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부정적 자아 개념으로 인해 상대와 협력적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고 있다.
- ③ (나)의 고등학생 ‘진수’는 상대의 칭찬을 통해 형성된 자아 개념으로 인해 긍정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하고 있다.
- ④ (다)의 ‘나’는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아 자신감 있는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다)의 ‘나’는 자아 개념에 기여를 하는 타인을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04~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감적 듣기는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대화 시 신뢰와 친밀감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감적 듣기의 방법으로는 집중하기, 격려하기, 반영하기 등이 있다.

나 형: ⑦ 물건이 여기저기 놓여있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편하지 않네.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면 좋겠어.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을까?

동생: 형 말을 듣고 보니 집이 정말 어지럽네. 그런데 지금은 나도 너무 피곤해서 조금만 더 쉬고 곧 정리해도 될까?

① 나라: 얘들아, 나 어제 방송에서 구독자 380명 늘었다.
대박이지?

지혜: 우와!

서우: 진짜?

나라: 맷글 반응도 엄청 좋았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서우: 나라야, 있잖아, 나…….

나라: 나는 ‘짜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워할 줄 몰랐어.

서우: 저기, 나라야…….

나라: 다음에 뭐 먹지? 어? 요즘 뭐가 인기 좋아?

서우: 아니, 나라야. 너는 왜 내 말은 안 듣고 항상 네 말만 해?

나라: 어? 내가 언제?

04 (가)를 참고하여 <보기>의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수: 넌 왜 나만 미워해? 나 정말 속상했어.

지우: ①정말? 그랬구나.

이수: 응. 말 걸어도 바쁜 척하면서 보지도 않잖아.

지우: ⑥너가 말을 걸었을 때 내가 그런 적이 있었구나? 좀 더 이야기해 봐.

이수: 맞아. 어제 바쁘다며 내 말에 건성으로 대답해서 서운 했어.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니 나를 미워한다고 느꼈어.

지우: ⑦네 말은 내가 너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거지?

- ① ①는 상대의 입장에서 보고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집중하기 전략에 해당한다.
- ② ⑥는 공감적 듣기에 해당하는 대화 방식으로 상대의 말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 ③ ⑥는 상대가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전략으로 격려하기에 해당한다.
- ④ ⑦는 상대가 한 말을 재구성하여 진술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 ⑤ ⑦는 상대와의 대화에서 신뢰와 친밀감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격려하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05 (나)에 사용된 말하기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통하여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에 해당하는 말하기 방법이다.
- ② 질책이나 비난을 하지 않음으로써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말하기 방법이다.
- ③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말하기 방법이다.
- ④ 상대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하기 방법이다.
- ⑤ 상대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음으로써 타인과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사용하는 말하기 방법이다.

서술형

06 (나)의 ‘형’의 대화 중 ⑦이 다음을 수정한 것이라고 할 때, 어떠한 전략을 사용한 것인지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이게 집이야? 쓰레기장이야? 너 때문에 정말 피곤해.

학습 활동 응용

07 (다)의 대화 후 ‘나라’와 ‘서우’가 자신의 말하기를 성찰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라’는 서운한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성찰하겠군.
- ② ‘나라’는 상대가 자신의 말에 공감하지 못한 이유가 자신의 잘못된 단어 선택 때문이라고 성찰하겠군.
- ③ ‘서우’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 대한 비난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성찰하겠군.
- ④ ‘서우’는 상대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는 점을 성찰하겠군.
- ⑤ ‘서우’는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여 돌려 말함으로써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성찰하겠군.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38~39번

[08~09] 다음은 동아리 학생들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우리 ○○시 천문 축제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어. 우리 동아리가 ‘조선 시대 천문학’을 주제로 전시 체험 공간을 운영하기로 했잖아. 저번에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서 각 조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볼게.

학생 2: 우리 조는 조선 시대의 천체 관측 기록에 대해 전시하기로 했잖아. 찾아보니까 영조 때의 혜성 관측 기록이 있었어. 그게 헬리 혜성을 관측한 기록이더라고.

학생 3: 그래? ⑦그런데 그 관측 기록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

학생 2: 조선 시대 기록인데도 혜성의 이동 경로, 밝기, 꼬리의 길이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어. 이는 헬리 혜성의 정확한 궤도를 보여 주는 기록이야.

학생 1: 대단한 기록이네. 전시물을 어떤 형식으로 만들 거야?

학생 2: ⑨혜성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전시물을 만들고 있는데 좀 멋있해 보여 걱정이네. 좋은 생각 있어?

학생 1: 영상으로 만들면 생생할 것 같은데 어때?

학생 2: ⑩영상은 생동감이 있어서 좋긴 한데, 행사 전까지 제작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학생 3: 역사 신문 형식 어때? 조선 시대 혜성 관측을 당시에 직접 취재한 것처럼 실감 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학생 2: 역사적 의의가 있는 기록을 소개하는 데 잘 어울릴 것 같아. 한번 해 볼게.

학생 1: 조선 시대 별자리 해설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

학생 3: 거의 다 됐어. 우리 조는 옛 별자리 28수를 준비하기로 했잖아. 그중에 여름철 별자리만 설명하려고 해. 사람들이 관측 행사 때 볼 수 있는 것을 다루려고.

학생 1: 그래. 그런데 옛 별자리가 사람들에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별자리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거야?

학생 3: 화면에 밤하늘 사진을 보여 주고 우리 옛 별자리의 모양이 서양 별자리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거야.

학생 1: 그래. 별자리 그리기 체험은 투명 카드에 야광 펜으로 그려 보는 활동을 준비하기로 했잖아? 얼마나 준비됐어?

학생 3: 카드에 미리 별의 위치를 표시해 두는 것까지 했는

데,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그릴 수 있겠지?

학생 2: ⑥응. 학교 행사 때 자리 동아리도 지역 명소를 표시한 활동지를 참여자들에게 주니, 여행 지도를 다들 쉽게 그리더라.

학생 1: 투명 카드와 야광 펜 외에 필요한 것 더 있어?

학생 3: 아니, 괜찮아.

학생 2: 그런데 별들의 밝기 차이도 카드에 나타내면 좋겠어.

학생 3: 사람들한테 크기가 다른 별 스티커를 직접 붙이게 할까?

학생 2: ④좋네! 별들의 밝기 차이를 나타낼 수 있겠어.

학생 3: 생각해 봤는데, 전시 체험 공간을 다녀간 사람들에게 참여 후기를 짧게 남겨 달라고 하는 건 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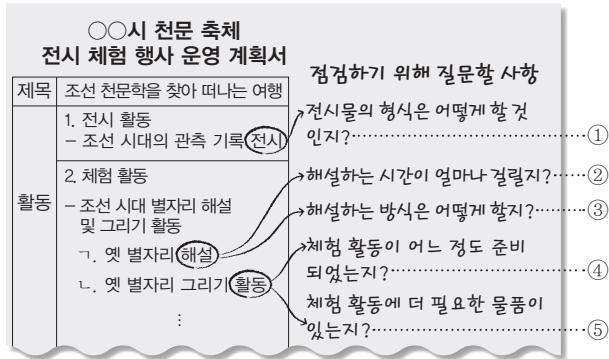
학생 1: 그래, 좋아. 교지 편집부에서 행사 소감문을 써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는데, 관람객들의 참여 후기 중 중요한 내용을 글에 활용할게. 남은 예산으로 별 스티커랑 참여 후기 쓸 메모지를 구입해서 곧 나눠 줄게. 그럼 여기까지 하자.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38번

08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⑦~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 직전 발화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② ⑨: 직전 발화와 관련하여 고민되는 부분을 언급한 뒤, 질문을 통해 대안을 요청하고 있다.
- ③ ⑩: 직전 발화 내용의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한 뒤,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⑪: 직전 발화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⑤ ⑫: 직전 발화를 재진술하고 제시된 방안의 효과를 덧붙이고 있다.

09 다음은 (가)에서 '학생 1'이 참고한 계획서의 일부와 메모이다. '학생 1'이 위 대화에서 점검하지 않은 것은?



[10] 다음은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의 초고를 수정하기 위한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1: 청소년의 팬 상품 소비를 다룬 초고를 검토할 차례지?

학생 2: 응, 초고는 내가 작성했어. 편집부장은 조금 늦는 대. 우리부터 의견 나누고 있자.

학생 1: 그래. 그런데 초고에 부정적인 관점의 내용만 제시 했던데?

학생 2: 친구들을 보면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 학생들이 팬 상품 소비에 대해 바람직한 태도를 지녔으면 해서 그렇게 썼어.

학생 1: 그런데 긍정적인 면도 분명 있잖아. 즐거움이나 행복과 같은 정서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끼리 더욱 친밀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관점의 내용을 균형 있게 제시해야 할 것 같아. [A]

학생 2: 나도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해. 하지만 주변 친구들을 보면 우려되는 점이 더 커 보여. 팬 상품 소비의 바람직한 태도를 강조하려면 우려되는 면을 부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학생 3: (들어오며) 회의에 늦어서 정말 미안해. 회의 시작 시간을 착각했어. [B]

학생 1: 괜찮아. 이제 막 시작했어.

학생 2: 너도 두 관점을 모두 제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C]

학생 3: (어리둥절해하며) 두 관점이라니 무슨 말이야?

학생 1: 방금까지 청소년의 팬 상품 소비에 대해 긍정하는 관점과 우려하는 관점의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룰 지, 우려하는 관점의 내용만 다룰지 논의 중이었어. [D]

학생 3: 아, 그랬구나. 판매 수익 기부처럼 팬 상품 소비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잖아.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생각해 [E] 볼 수 있게, 괜찮다면 두 관점의 내용을 모두 글에 담아 줄 수 있어?

학생 2: 듣고 보니 내가 너무 우려되는 점만 강조하려 한 것 같아. 팬 상품 소비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볼게.

학생 1: 좋아. 그러면 제목도 그에 맞게 수정 부탁해.

학생 2: 알겠어.

10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A]~[E]의 대화 참여자의 발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1]

대화 상황에서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기, ④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 ⑤ 상대방의 의견과 일치되는 점을 언급한 후 자신의 의견 제시하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자료 2]

대화 참여자들이 ⑥ 대화 상황과 관련한 맥락을 공유하는 일은 중요하다. 맥락이 공유되지 않아 ⑦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① [A]: '학생 2'의 발화는 상대방과 의견이 다름을 제시하기 전에 공통되는 의견부터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④에 해당한다.

② [B]: '학생 1'의 발화는 상대방이 회의에 늦은 것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⑤에 해당한다.

③ [C]: '학생 3'의 발화는 상대방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는 대신 되묻고 있다는 점에서, ⑥에 해당한다.

④ [D]: '학생 1'의 발화는 회의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⑦에 해당한다.

⑤ [E]: '학생 3'의 발화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명령형으로 표현했을 때보다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⑧에 해당한다.

대단원 1등급 완성 문제

정답과 해설 13쪽

I. 대화와 표준 발음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아 개념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이다.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아 개념은 또다시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나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러한 과정을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에 비해 상대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 긍정적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상대와 ⑦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다 타인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상대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때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의 순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화 방식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적절하게 자기표현을 하며, 상대의 입장에 공감하고 반응하며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감적 듣기는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대화 시 신뢰와 친밀감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감적 듣기의 방법으로는 집중하기, 격려하기, 반영하기 등이 있다.

0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자아 개념의 의미
- ② 공감적 듣기의 방법
- ③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의 관계
- ④ 부정적 자아 개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⑤ 타인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

02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① 남학생은 자신이 그림을 잘 그린다는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군.
- ② 여학생의 말은 남학생의 자아 개념이 변화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겠군.
- ③ 남학생이 가진 긍정적 자아 개념이 여학생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도록 작용했겠군.
- ④ 남학생과 같은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면 상대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겠군.
- ⑤ 남학생이 여학생과 나눈 대화는 다시 남학생의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군.

03 (가)를 참고할 때, <보기>의 ④와 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민준: 어제는 내 기분이 엉망이었어.

지우: ④정말? 그랬구나.

민준: 그래서 하루 종일 방에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괜찮아. 오늘은 좋은 일이 생겼거든.

지우: ⑥우아, 좀 더 이야기해 봐.

- ① ④는 ‘격려하기’를 통한 공감적 듣기로 청자의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⑥는 ‘반영하기’를 통한 공감적 듣기로 상대가 한 말을 자신이 이해한 말로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 ③ ④는 ‘집중하기’를 통한 공감적 듣기로 상대를 마주 보고,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다.
- ④ ⑥는 ‘반영하기’를 통한 공감적 듣기로 상대가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 ⑤ ⑥는 ‘격려하기’를 통한 공감적 듣기로 말하는 상대에게 몰입하여 집중해서 듣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 문제

04 ⑦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한 번 일어난다.
- ② 비음화가 두 번, 된소리되기가 한 번 일어난다.
- ③ ‘ㄴ’ 첨자가 한 번, 된소리되기가 한 번 일어난다.
- ④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한 번, 된소리되기가 한 번 일어난다.
- ⑤ 비음화가 한 번, 유음화가 한 번, 된소리되기가 한 번 일어난다.

[05~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국어의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뿐이다. 이 밖의 나머지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발음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⑦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나 겹받침의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자음이 두 개 연결된 자음군이 음절의 끝소리에 놓이게 되면 둘 중 하나만 남고 나머지 하나는 탈락한다.

다 받침으로 쓰인 ‘ㅎ(ㆁ, ㅋ)’은 어떤 말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ㅎ(ㆁ, ㅋ)’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 뒤 음절 첫소리와 결합하여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받침 ‘ㄱ(ㆁ), ㄷ, ㅂ(ㆁ), ㅈ(ㆁ)’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 [ㅋ, ㅌ, ㅍ, ㅊ]으로 발음하는데 이를 거센소리되기 혹은 격음화라고 한다.

‘ㅎ(ㆁ, ㅋ)’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0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밑줄 친 말의 발음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늘은 날씨가 참 맑다[말따].
- ② 나는 그와 만난 적이 있다[일파].
- ③ 기와지붕에 퍼렇게 이끼가 앉아[안자] 있다.
- ④ 마을 입구에 있는 길은 그리 넓지[널찌] 않다.
- ⑤ 그는 코가 뭉툭하고 입은 넓죽하다[넙쭈카다].

06 밑줄 친 말 중, ⑦을 적용하여 발음해야 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화단에 편 저 꽃 정말 예쁘다.
- ② 어서 집에 가서 낫 좀 가져와라.
- ③ 비가 와서 연못이 물로 가득 채워졌다.
- ④ 국이 다 끓었으니 솔뚜껑을 열어 놓아라.
- ⑤ 책을 읽고 난 후 책을 덮고 생각에 잠겨 보았다.

통합 문제

07 다음 ①~⑤의 발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우: 너도 할 수 있어. 미리 겁먹지 마.

나라: (한숨) 난 좀 무서운데. <중략> 사람들이 또 악성 ⑦댓 글 쓸까 봐.

서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우리가 ④있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항상 네 편이야.

지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용기 있게 도전해 봐.

나라: 나는 ④없네요, 그 용기.

지혜: 네가 ‘짜기’ 때 상처 ④많이 받은 건 아는데, 그래도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나라: 그래. 나도 언제까지 ④이렇게 지낼 순 없어. 나도 내 상처를 극복하는 거야!

서우: 맞아, 맞아, 파이팅!

지혜: 할 수 있다, 빛나라!

① ⑦: [댄끌]

② ④: [인짜나]

③ ④: [업:네요]

④ ④: [마:니]

⑤ ④: [이러케]

[0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앞에 오는 소리의 영향을 받아 각각 된소리 [ㅋ, ㅌ, ㅍ, ㅆ,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된소리되기 혹은 경음화라고 한다.

된소리되기는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난다. ① 받침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고, ② 어간 받침 ‘ㄴ, 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또한 ③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나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앞말의 마지막 자음이 ‘ㄹ’일 경우에는 ‘설-익다[설릭따], 휘발-유[휘발류]’처럼 첨가되는 ‘ㄴ’이 실제로는 [ㄹ]로 발음된다. 이것은 ‘ㄴ’이 첨가된 후 ‘ㄴ’이 앞의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 받침 ‘ㄱ, ㄷ, ㅂ’ 뒤에 비음인 ‘ㄴ, ㅁ’이 올 때 앞선 받침인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비음의 조음 방식에 동화되어 동일한 조음 위치의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다. ⑦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비음화가 일어난다.

ⓐ 받침 ‘ㅁ, ㅇ’ 뒤에 결합되는 ‘ㄹ’이 [ㄴ]으로 발음되거나, 받침 ‘ㄱ, ㅂ’ 뒤에 결합되는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 ⑧ 받침 ‘ㄱ, ㅂ’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는 그 [ㄴ] 때문에 ‘ㄱ, ㅂ’이 다시 [ㅇ, ㅁ]으로 발음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한자어에서 일어난다.

라 그런데요, 이 ‘아니 그게 아니고’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뇌에서 최소한 ⑨ 압정이나 머리핀으로 우리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줍니다. 왜? 내 말이 방금 전에 부정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쉽게 지칩니다. 옆에서 누가 계속해서 찌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말의 방향을 유지하기도 되게 힘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응대어를 쓰느냐로 대화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아니 그게 아니고’라고 하는 응대어를 사용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⑩ 맥락이나 어떤 기조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말투가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건 사실 본능이죠.

08 <보기>의 발음 과정에 적용되는 음운 변동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내복약 → [내:복냑] → [내:봉냑]

- ① ‘ㄴ’ 첨가, 비음화
- ② ‘ㄴ’ 첨가, 유음화
- ③ ‘ㄴ’ 첨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 ④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 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유음화

09 ⑦의 구체적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책 넣는다[챙년는다]
- ② 흙 말리다[홍말리다]
- ③ 옷 맞추다[온맏추다]
- ④ 입 벌리다[입뻘리다]
- ⑤ 값 매기다[감매기다]

통합 문제

10 ⑧~⑩ 중, ⑨와 ⑩의 발음에 적용된 음운 변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 |
|---|----------|----------|
| ① | <u>ⓐ</u> | <u>ⓑ</u> |
| ② | <u>ⓐ</u> | <u>ⓔ</u> |
| ③ | <u>ⓑ</u> | <u>ⓓ</u> |
| ④ | <u>ⓑ</u> | <u>ⓔ</u> |
| ⑤ | <u>ⓒ</u> | <u>ⓓ</u> |

서술형 문제

11 <보기>에 나타난 ‘형’과 ‘동생’의 말하기 방식의 문제점을 각각 서술하고, 이를 비폭력 대화의 방식으로 수정하시오.

보기

형: 이게 집이야? 쓰레기장이야? 너 때문에 정말 피곤해.
넌 치울 줄 몰라? 빨리 청소해!
동생: 청소는 내가 형보다 더 많이 하는데……. 나도 피곤
하단 말이야!

(1) 말하기 방식의 문제점: _____

(2) 수정하기: _____

12 <보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의 필요성을 자아 개념과 연관 지어 서술하시오.

보기

‘아니 그게 아니고’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뇌에서 최소한 압정이나 머리핀으로 우리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줍니다. 왜? 내 말이 방금 전에 부정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쉽게 지칩니다. 옆에서 누가 계속해서 찌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말의 방향을 유지하기도 되게 힘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응대어를 쓰느냐로 대화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아니 그게 아니고’라고 하는 응대어를 사용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맥락이나 어떤 기조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말투가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건 사실 본능이죠.

13 받침을 가진 말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발음 양상에 대해 <조건>에 맞추어 서술하시오.

보기

- 깎아[까까] 옷이[오시] 있어[이씨] 낫이[나지] 꽂아[꼬자]
꽃을[꼬출] 쫓아[쪼차] 앞으로[아프로] 덮이다[더피다]
- 앉아[안자] 닦을[달글] 젊어[절머] 훑어[할타] 읊어[을퍼]

조건

-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바를 설명할 것.
- 받침이 홀받침이나 쌍받침일 때와 겹받침일 때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것.

14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밑줄 친 말의 발음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

보기 1

유음화는 유음인 ‘ㄹ’에 인접한 ‘ㄴ’이 유음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순행적 유음화는 ‘ㄹ’로 끝나는 형태소와 ‘ㄴ’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결합할 때 적용되어 ‘ㄹ+ㄴ’ 연쇄를 ‘ㄹㄹ’로 바꾸어 준다. 그리고 역행적 유음화는 ‘ㄴ’으로 끝나는 형태소와 ‘ㄹ’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결합할 때 적용되어 ‘ㄴ+ㄹ’ 연쇄를 ‘ㄹㄹ’로 바꾸어 준다.

보기 2

이 지역 사람들은 해마다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물난리를 겪는다.

15 <보기 1>의 ①~⑤의 발음이 <보기 2>의 ⑦~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기호를 쓰고, 발음의 적용 과정을 서술하시오.

보기 1

- 도로에서 공사를 통해 좁은 길을 ①넓게[널께] 만들고 있다.
- ②꽃다발[꽃따발]을 받아든 연주자는 객석을 향해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했다.
- 나는 신발을 ③신고[신:꼬] 외출할 준비를 막 마쳤다.

보기 2

- ⑦ 받침 ‘ㄱ(ㅋ, ㅋ, ㅋ, ㅋ), ㄷ(ㅅ, ㅆ, ㅈ, ㅌ), ㅂ(ㅍ,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⑧ 어간 받침 ‘ㄴ(ㄴ),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⑨ 어간 받침 ‘ㅂ, ㅍ’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비음화의 특징에 대해 <조건>에 맞추어 서술하시오.

보기

‘밥만[밥만]’, ‘얻는[언:는]’, ‘국물[궁물]’에서는 모두 비음화가 나타난다. 아래 표의 화살표는 비음화 전후의 음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여린입 천장소리
파열음	ㅂ	ㄷ	ㄱ
파찰음			
마찰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조건

비음화의 특징에 대해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변화 여부의 측면에서 서술할 것.

16 <보기>의 밑줄 친 말에 대한 괄호 안의 두 발음 중 표준 발음이 어느 것인지 고르고, 그와 관련된 음운 변동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보기

- (1) 손님은 부엌과([부억과], [부억파]) 거실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 (2) 우리는 군대의 독립([독닙], [동닙]) 초소에서 근무했다.

18 ‘밭일’의 발음 과정에서 어떤 음운 변동이 적용되는지 순서에 맞게 설명하시오.

문제의 의도,
정답 해설과
오답 풀이를 제공하는



정답과 해설

I 대화와 표준 발음

1.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 자아 개념과 협력적인 대화

간단 확인 문제

본문 8쪽

- 01 (1) × (2) ○
- 02 (1) 긍정적 (2) 공감적
- 03 비폭력 대화

01 (1) 자아 개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장하면서 변하기도 한다.
(2)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02 (1)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 긍정적인 대화로 이어져 상대와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2) 공감적 듣기는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대화 시 신뢰와 친밀감을 갖게 한다.

03 상대를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대화 방식은 비폭력 대화이다.

■ 자아 개념과 협력적인 대화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8~11쪽

- 01 ③ 02 의사소통 03 ③ 04 ⑤ 05 ⑥: 타인과의 관계
⑥: 의사소통 방식 06 ④ 07 ② 08 ⑤ 09 ⑤ 10 폭력적인, 비폭력

01 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그. 대화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화법 유형에 해당한다.

ㅁ. 대화 참여자들은 타인의 말이나 반응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된다.

|오답 풀이| ㄴ. 대화는 둘 이상의 참여자가 생각이나 정보 등을 주고받으므로 일방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ㄷ. 자아 개념은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이므로 반드시 대화 능력이 있어야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02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아 개념은 또다시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므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의사소통’이다.

03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4 [A]에서 남학생은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소심하고 말이 없었으나 중학교 때 만난 친구의 칭찬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A]를 통해 자아 개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장하면서 변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부정적 자아 개념을 지닌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②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 과정에 있다.

③ 자아 개념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이다.

④ 자아 개념은 자아 성찰뿐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자아 개념 형성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을 ‘중요한 타인’이라고 한다.

05 자아 개념은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주고 이는 곧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평가가 다시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 과정에 있다. 이러한 관계를 염두에 둘 때, ⑥와 ⑦에는 ‘타인과의 관계’, ‘의사소통 방식’이 들어가야 한다.

06 원만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 개념을 돌아보고 의사소통 방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타인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이 어떠한지 스스로 점검하여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